CUMBERLAND
CITY COUNCIL

보도 자료

컴벌랜드 지방세 단일화에 관한 협의 시작

2020 년 3 월 20 일

컴벌랜드(Cumberland) 시 카운슬은 2020 년 3 월 20 일 금요일에 시작되는 지역사회 협의와 함께 지방 세제 단일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카운슬의 해미시 맥널티(Hamish McNulty) 사무국장(General Manager)에 따르면, 2016 년 세 개 카운슬(홀로이드, 어번, 파라마타 카운슬의 상당 부분)이 통합된 이후 주정부의 요건에 따라 기존의 지방 세제가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컴벌랜드는 2016 년의 통합 이래 세 가지 세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정부법에 따라 지방세가 단일 세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라고 맥널티 국장은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카운슬은 절실히 요구되는 지방 세제 개혁을 실현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비롯해 기존 및 신규 공공 자산과 기반시설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맥널티 국장은 컴벌랜드가 납세자로부터 받는 세수와 기반시설 및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비용 사이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2016 년에 카운슬의 경계를 새로 정할 때, 컴벌랜드는 어번의 산업지구, 시드니 올림픽 파크, 뉴잉턴과 웬트워스 포인트 지역의 기업들이 내는 제방세 수입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벌랜드는 추가되는 40,000 명의 주민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합병에 따른 카운슬의 지방 세제로 인해, 일부 주민과 사업체는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되었고 정부관할지역(LGA) 내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카운슬은 70,389 명의 납세 주민과 4,369 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방세 단일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협의와 전화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카운슬은 아직 지방세 단일화에 대한 우선 방안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이나, 각 지역구의 주민 및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모두의 입장이 반영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라고 맥널티 국장은 밝혔습니다.

“모든 납세자 여러분은 카운슬로 각자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카운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1 차 지역사회 협의는 2020 년 6 월 1 일 월요일에 마감됩니다.

올해 9 월 실시될 카운슬 선거 이후, 카운슬은 2021 년 6 월 새로운 지방 세제가 도입되기 전에 제 2 차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